

지체의 말씀

불기 2563년 7월 / 통권 461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證道歌(증도가)

기 유 착 공 병 역 연
棄有着空病亦然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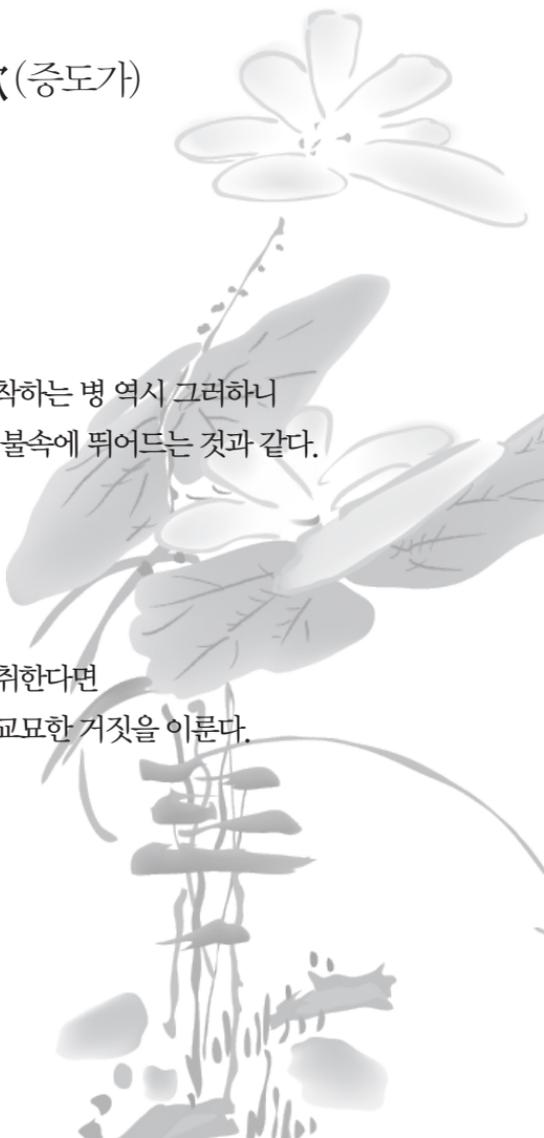
환 여 피 익 이 투 화
還如避溺而投火라

있음을 버리고 공에 집착하는 병 역시 그러하니
도리어 마치 물을 피해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사 망 심 취 진 리
捨妄心取眞理여

취 사 지 심 성 교 위
取捨之心成巧僞로다.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한다면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교묘한 거짓을 이룬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마른 뼈 한 무더기 / 원성스님

불교상식 · 7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말씀 · 10

알림마당 · 13

대광사 7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대광유치원 7·8월 행사계획

어린이법회 7·8월 활동

백중(합동천도재)기도 안내



표지그림 / 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인쇄 / 디자인스프링





마른 뻘 한 무더기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세존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위성의 어느 거리를 지나시다가 마른 뻘 한 무더기를 발견하시고 그 곁으로 가시어 뻘을 향해 합장하시고 절을 하셨다. 아난과 대중이 깜짝 놀라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삼계의 스승이시며, 사생의 어버이이신 높으신 여래께서 어찌 저 마른 뻘을 향해 절을 하십니까?」이에 세존께서 이르셨다.

「아난아 너는 나의 상수 제자로 출가한지 오래거늘 이를 알지를 못하는구나. 이 한 무더기 마른 뻘의 주인이 혹 전생에 내 부모였거나 조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한 것이다.」 하셨다.

오늘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전생이나 전 전생에 혹은 더 먼 전생에 내 부모였을지 형제였을지 모르는 일이다. 수많은 생을 윤회하며 수많은 사람을 인연 맺으며 지나왔을 테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전생의 내 부모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부모 은증경」은 시작된다. 이어 부모의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설하시는데 그 절절하고 세밀함은 다른 어떤 경전에서 볼 수 없고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함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과정을 설명하시며 수태의 생물학적 변화과정을 설명하시고 열 달 동안 태중에서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해드렸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여 듣는 대중으로 하여금 눈물짓게 하셨다.

이어 부모의 은혜를 열 가지로 구분지어 설하셨는데 그를 간략히 소개하면

‘첫째, 뱃속에 열달간 보호해 주신 은혜다.’ 이를 ‘회탐 수호은’이라 한다. 임신부는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 감기가 들어도 약을 먹지 못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먹어선 안 된다.

‘둘째,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치르신 은혜다.’ 이를 ‘임산 수고은’이라 한다. 아이 낳는 아픔은 죽음을 느낄 정도라 한다. 전신의 뼈가 물러질 정도로 아프다고 한다.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수술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수술이라고 고통이 적은 것은 아니다.

‘셋째, 아이를 낳고 고통을 다 잊으시는 은혜다.’ 이를 ‘생자 망우은’이라 한다. 그렇게 두렵고 힘겨운 출산과 임신이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보는 순간 아이를 향한 사랑에 그 고통을 다 잊으시는 은혜다.

‘넷째, 좋은 것 맛난 것은 아이에게 먹이고 당신은 맛없는 것을

먹는 은혜다.’ 이를 인고토감은이라 한다. 맛난 음식을 보면 아이에게 먼저 먹이고 자기는 그 나머지를 먹는다. 모든 부모가 한결같이 이런 은혜로움을 보이신다.

‘다섯째, 좋은 자리에 아이를 머물게 하고 좋지 않은 자리에 당신이 머무시는 은혜다.’ 이를 회건 취습은이라 한다.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아이를 머물게 하고 위험하고 불편한 자리에는 당신이 머무시는 은혜를 말한다.

여섯째, 배불리 먹여주신 은혜. 일곱째, 더러운 것 마다 얹으시고 보살펴주신 은혜. 여덟째, 멀리 간 자식을 늘 걱정해 주시는 은혜. 아홉째, 자식을 위해 나쁜 일도 마다 얹으시는 은혜. 열째, 돌아가실 때 까지 자식 걱정 놓지 않으시는 은혜.등이 더 있지만 지면상 간략히 적는다.

말씀을 듣고 많은 대중이 부모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 은혜를 갚을 수 있는지를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답하시었다.

몸이 가루가 되도록 부모를 위해 받들고 봉양하여도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 어떤 진귀한 보물로 공양해도 은혜를 다갚지 못한다. 고 말씀하시며 다만 정성을 다해 부모를 봉양하고 다음 세상에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해 공덕을 짓고 복을 빌어드려야 한다 하셨다.

우리가 천도재를 해마다 올리는 것은 부모님과 조상과 멀고 가까운 친척과 가까웠던 이웃을 위해 공덕을 빌어 드림이다. 그분들이 내 정성으로 명로를 밝게 여시어 고해를 더는 해매지 않게 해 드리려 함이다.



부처님의 말씀

6. 초전법륜과 전법

2) 전도선언

부처님은 아라한트의 경지에 오른 제자들에게 후일 전도선언으로 유명한 말씀을 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붙잡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어진 법을 설하라.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라.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겠지만
 들으면 분명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전하러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인도의 북쪽 당, 녹야원에서 구르기 시작한 진리의 수레바퀴는 이제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진리의 수레가 닿는 곳이면 사람들은 더 이상 슬픔과 괴로움과 번민
 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다.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내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진리의 처방이 수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3) 제자들의 귀의

우루웰라의 깃사빠 삼형제

초기교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마가다국의 우루웰라에서 깃사빠 삼형제와 그들을 따르는 1천 명의 제자들, 라자가하에서 사리뵈다와 목갈라나가 회의론자 산자야의 제자 250명이 집단 개종한 일이다.

특히 우루웰라의 깃사빠 삼형제의 귀의는, 당시 가장 존경받는 인도사회 정통종교의 사제가 젊은 청년 석가모니를 스승으로 모신다는 의미로 마가다국 전역을 들쭉거리게 했다.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가다국의 왕 빔비사라는



이때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왕은 부처님에게 자신의 벨루바나 동산을 기증하였는데, 이것이 불교에서 가장 먼저 생긴 절이며 죽림정사(竹林精舍)라고 불린다.

사리뿔따와 목갈라나

뛰어난 수행자들의 귀의도 이어졌다. 그중 사리뿔따와 목갈라나의 개종은 큰 의의를 지닌다. 두사람은 어려서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그들은 함께 자신들을 이끌어 줄 진리의 스승을 찾아 집을 나섰다. 둘중의 어느 한사람이라도 그런 분을 만나면 반드시 친구에게 먼저 알려 주어 똑같이 한 스승 아래에서 제자가 될 것을 약속하고 당시 유력한 사문이었던 산자야의 제자가 되어 수행 중이었다. 이 두사람이 부처님의 제자로 개종을 했는데, 그들은 이후 불교교단의 중심이 되어 교단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특히 사리뿔따는 지혜가 매우 뛰어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자리를 뜨면 자세한 설명을 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훗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교화한 뒤에 열반에 들었다.

목갈라나는 신통력이 으뜸가는 제자였다. 그는 신통력으로 중생이 죽은 뒤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지를 환히 볼 수 있었는데 살아생전 너무나도 인색하였던 자신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우란분재(盂蘭盆齋)를 올린 주인공이다.

부처님은 이 두사람을 가리켜 중생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라고 칭찬하셨으며, 두 사람이 부처님보다 앞서 열반에 들자 “법회의 자리가 텅 빈 것 같다”는 탄식을 하실 정도였다.



첫 번째 말씀(숫타니파타)

제2품 작은 법문의 품

5. 쑤찐로마의 경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가야에 있는 땅끼따만짜에서 쑤찐로마라는 아차의 집에 계셨다.
2. 그런데 그때 카라리는 아차와 쑤찐로마 아차가 세존께서 계신 곳에서 멀지 않는 곳을 지나고 있었다.
3. 그때 아차 카리는 아차 쑤찐로마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카라] “이분은 수행자이다.”:
[쑤찐로마] “아니다. 그는 수행자가 아니다. 적어도 그가 수행자인지 새내기 수행자인지 내가 알 때까지 그는 새내기 수행자이다.”
4. 그리고 아차 쑤찐로마는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몸을 굽혀 부딪쳤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몸을 젖혔다.
5. 그리고 아차 쑤찐로마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쑤짚로마] “수행자여, 그대는 나를 두려워합니까?”

6. [세존] “벗이여, 나는 결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아까 그대의 부딪힘은 기분 나쁜 것입니다.”
7. [쑤짚로마] “수행자여, 나는 그대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그대가 나에게 대답하지 못하면, 나는 당신의 마음을 미치게 하거나 심장을 찢어버리거나 또는 두 발을 붙잡아 갠지스 강 저쪽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8. [세존] “벗이여, 나는 이 신들의 세계, 악마들의 세계, 하느님들의 세계,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후예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서 나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나의 심장을 찢어버리고 나의 두 발을 붙잡아 갠지스 강 저쪽으로 던질 수 있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벗이여, 네가 원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야차 쑤짚로마는 세존께 이와 같이 질문했다.

9. [쑤짚로마] “탐욕과 미움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불쾌함과 즐거움과 털이 곤두서는 전율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어린아이들이 다리를 묶어 까마귀를 놓아준 것처럼 마음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일어납니까?”
10. [세존] “탐욕과 미움은 여기서 연유하고 불쾌함과 즐거움도 털



이 곤두서는 전율도 여기서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이 다리를 묶어 까마귀를 놓아준 것처럼 마음의 상념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11. 뽕꿀 보리수에 많은 줄기가 나 있는 것처럼, 감각적 쾌락에서 일어나며 스스로에게서 생겨납니다. 칙이 숲 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감각적 쾌락에 얽매어 있습니다.
12. 어디에서 생겨났는가를 밝게 아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없애버립니다. 아차여, 들으시오. 그들은 건너기 어려운 거센 물결을 건너, 다시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 다음호에 계속 -



대광사 7월 법회 및 행사

- ◆ 7월 03일 : 음력6월 초하루기도 입재 (오후 10시 30분 설법전)
- ◆ 7월 04일 : 백중기도 초재 (오전 10시 설법전 / 회주스님 법문)
- ◆ 7월 05일 : 초하루기도 회향
- ◆ 7월 11일 : 백중기도 2재 (오전 10시 설법전 / 종광스님)
- ◆ 7월 17일 : 음력6월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주지스님)
- ◆ 7월 18일 : 백중기도 3재 (오전 10시 설법전 / 회주스님)
- ◆ 7월 25일 : 백중기도 4재 (오전 10시 / 주지스님)
- ◆ 7월 26일 :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저녁 6시 30분 대웅전)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중무소 ☎055-545-9595





고맙습니다

대광 후원회

(5. 20~6. 17)

김경남 20,000	우명희 20,000	이미정 50,000	찬불단 50,000
정진이 10,000	홍기준 20,000	홍예현 50,000	이연숙 100,000
동우영 50,000	이봉숙 10,000	공상섭 30,000	정연수 30,000
(주)카텍 300,000	유봉악 10,000	강 란 10,000	김성욱 30,000
조금숙 35,000	익 명 30,000	후원회 100,000	정진이 10,000
이경화 10,000	금강지 10,000	유미란 50,000	자성스님 100,000
원광한의원 100,000	대광지 10,000	김병문 30,000	서경스님 350,000
박미애 10,000	김지현 10,000	황두관 1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초파일 꽃공양

법계화 200,000 안세라·안미라 안소현 30,000 지정 50,000
 고봉주 50,000 고태우 50,000 안영환 200,000 덕성심 50,000
 김정원 30,000 만법수 20,000 정법행 20,000 진성화 20,000
 김기택 20,000 김은영 100,000

♥ 산사음악회 후원자(누락분)

염불봉사회 100,000 안은옥 100,000

♥ 초하루 공양자

자향심 100,000

♥ 5대보궁 성지순례 공양자

시라회장님 50,000



7·8월 대광유치원 행사계획

1. 2019학년도 여름방학

- 기간 : 7월 25일(목) ~ 8월 8일(목) (10일간)
- 개학일 : 8월 9일(금)

7·8월 어린이법회 활동

1. 어린이법회 방학

- 기간 : 7월 27일(토)~ 8월 31일(토)

2. 대광사 여름불교학교 템플스테이

- 일시 : 8월 10일(토) ~ 11일(일) (1박2일)
- 장소 : 대광사
- 대상 : 초등 1학년 ~ 6학년 선착순 60명
- 참가비 : 40,000원

3. 2학기 법회 개강일

- 일시 : 9월 7일(토)



백중(합동천도재) 기도 안내

- 입재 : 6월 28일(금) 오전 10시 설법전
회향 : 8월 15일(목) 오전 9시 30분 설법전
- 초재~6재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설법전
- 제사이외 사시예불 시간 :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동참금 : 영가1위당 2만원(준비물 없음)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055-545-9595

제사일정	법사스님	시간
입재	회주스님	오전 10시
초재		
2재	종광스님 또는 유진스님	
3재	주지스님	
4재	원정스님	
5재	회주스님	
6재	종광스님 또는 유진스님	오전 9시 30분
막재	회주스님	

*백중기간동안 제사를 제외한 모든 기도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입재~6재 : 오전 10시 / 회향 : 오전 9시 30분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